호남 각 지역에 코로나 극복 봉축탑 불 밝혀

광주 · 고창 등에서 불교계 한마음 모여

고창 선운사 고창군청서 광주불교계, 수완호수 등 시민명소에서 점등 개최





호남 각 지역에 봉축탑이 세워져 시민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고창군청 앞 점등식. 사진 오른쪽은 광주 수완호수공원 봉축탑 모습.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각 지역에서 점등식이 진행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30일 고창군청 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개최했다. 법회는 풍물패의 식전공연에 이어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인사말, 격려사, 축사, 발원문 낭독, 선운사합창단의 음성공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등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종회의원 재안 스님, 태효 스님, 상원사 주지 대륜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의장,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선운사 합창단 등 불자들이 동참해 점등을 축하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 장엄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모든 군민과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봉축탑 불빛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등불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자비광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불교계는 코로나로 인한 아픔을 국민과 나누어 왔다. 이제는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사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선운사 스님들과 불자들이 마음을 내어 준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뜻을 알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원하자"고 말했다.

봉축탑 점등에 이어 선운사 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이어졌다. 고창군청 앞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봉축탑은 높이 10m규모로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히고 고창군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4월 30일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5월 4일 광천버스터미널에서 점등식 행사를 갖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다. 이 두 곳은 각 자치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이자 광주를 찾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올해 처음으로 봉축탑이 설치됐다. 행사에는 도성 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임원스님들과 각 지역 사찰 스님, 신도회, 각 구청 불자회 등이 참여했다.

도성 스님은 수완호수공원 점등식에서 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힘들게 버텨 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봉축탑을 점등함으로써 병환에 있는 환우들은 빠른 쾌유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안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천터미널 점등식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밝히는 전통의 불빛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길 바란다. 봉축탑은 다시 문화가 교류하는 평상시 생활로 돌아오기를 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수완호수공원에는 정림사지5층 석탑을 한지등로 재현한 봉축탑이, 광천터미널에는 성덕대왕신종을 한지등으로 재현한 봉축탑이 세워져 5월 23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는 5월 7일 광주공원, 10일 광주역 앞 광장에서도 점등식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동원사 10년간 지역나눔

10년간 생일 비용 모아 회향

10년째 생일을 지역주민들과 나눔 잔치로 여는 노스님이 화제다.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장)는 5월 6일 회주 지각 스님 생일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젓갈과 장아찌세트'를 전달했다.

10년 전 칠순잔치 축하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잔치로 진행하며 시작된 지역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홀로 생활하는 어른들을 위해 집반찬 배달로 진행됐다.

집반찬은 젓갈(갈치속젓, 가리비젓, 새우젓, 밴댕이젓), 장아찌(깻잎장아찌, 양파피클)로 구성됐다. 여기에 건강을 생각해 '자색양파즙'까지 정성껏 담아 지산 1,2동 산수1,2동 200분의 어르신에게 전달됐다.

지각 스님은 "오랜 세월을 힘겹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오늘 드리는 선물세트가 어르신들이 이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월 1일 안동 웅부공원에 점등된 안동봉축등의 모습.

안동사암聯, 봉축등 점등식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는 5월 1일 안동시 웅부공원 경내 영가헌 앞뜰에서 봉축탑 및 봉축연등을 점등했다.

이날 봉축등 점등식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륜 스님과 광흥사 주지 구견 스님, 서악사 주지 함흥 스님, 천태종 해동사 도선 스님, 진각종 옥정심인당 도경 정사 및 김형동 지역 국회의원, 김홍석 안동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회장 도륜 스님은 "어려운 시기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힐 수 있어 감사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천태종 해동사 주지 도선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고 공양하여, 이 땅의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비춰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봉축등 점등식 후에는 공원 경내 종각 앞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인천 지장기도 근본도량 자리매김"

지장 성지 수승사 4월 29일 사찰개원 및 점안법회 봉행 5월 31일까지 지장보살상 친견 및 참배 행사 진행해



인천 수승사는 4월 29일 사찰 개원 및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지장기도성지인 한국불교 태고종 인천 수승사가 4월 29일 사찰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증명법사로 성오 스님(태고종 총무부원장) 청공 스님(태고종 충남아산종무원장) 성혜 스님(태고종 서울중부종무원장)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성오 태고종 부원장 스님은 "흔히들 스님이 되면 속세를 떠난다고 한다. 하지만 수승사 주지 법오 스님은 도심 속에서 속세를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불법을 열심히 전할 것"이라며 "저희 한국불교 태고종 재가승 제도에 입교해 교육을 마친 법오 스님은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수행자로서 전법과 포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에 나갈 것"이라고 축하했다.

수승사 주지 법오 스님은 "사찰 창건을 마음먹고 수행하던 중 뜻하지 않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인 지장보살님과 여러 팔부신중님들을 차례로 친견하게 됐다"며 "뛰어나며 승승장구하다는 의미인 수승사(殊勝寺)란 이름처럼 불제자 모든 분들이 뛰어나고 수승한 존재가 되기를 발원하며 사찰을 창건하게 되었다"고 사찰 창건 계기를 말했다.

이어 법오 스님은 "저희 수승사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신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고 부처님 가피를 듬뿍 받아가시길 바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여법한 삶을 사시는 불자들이 되시길 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한다"고 말했다.

수승사는 개원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지장보살 친견 및 참배 행사를 갖는다.

수승사에는 청년 불자들을 위해 문화카페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수승사 측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와 함께 문화 생활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법주 능화 스님(인천 종무원장), 혜일 스님(제주 정방사 주지), 진화 스님(전법사 회장, 등고사 주지) 등 사부대중 1백여 명이 참석했다. (032)543-6606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어버이날 행사 진행

선운사서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이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에서는 5월 6일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자녀들을 대신해 복지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부모사진을 자녀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사랑의 포토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거동이 불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고수면 평지경로당 외 11개소 이용자, 밑반찬서비스 어르신 등 868명에게 복지관 직원이 직접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선물도 전달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장 대원 스님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각박해지고 부모와 자녀간의 만남이 어려워져 큰 걱정이 되고 있다"며 "오늘 행사로 인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효친사상과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